

노인의 삶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 혹은 우울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Expectations about Life and Life Satisfaction or Depression
among the Older Adults

방 지 원*

백 상 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Jiwon Bang

Sangeun Baek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초록)

생의 후반기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기대감에 의해 좌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년기에 갓 접어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대감과 삶의 만족이나 우울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제8차(2020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자료에서 65세에서 74세 사이의 2,047명의 자료를 회귀분석에 활용했다. 회귀분석에서는 삶의 만족과 우울을 종속변인, 네 가지 주관적 기대감(유산 증여, 근로, 기대수명, 정부 정책)을 독립변인, 그리고 취업상태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했다.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기대감 중에서 유산 증여 기대감만이 그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드러났다.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네 가지 기대감 중 근로 그리고 정부 정책에 관한 기대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고령자의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 및 우울의 관계에 취업상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

* (우)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방지원 박사
(e-mail: wh486jw@gmail.com)

** Correspondence to: (우)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백상은 박사 (e-mail: 100sangeun@hanmail.net)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에서는 고령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어 : 생의 후반기 삶의 질, 주관적 기대감, 삶의 만족, 노인성 우울, 노년기 취업

(Abstract)

Quality of life and mental health in the second half of life are influenced by positive perceptions or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pectations and life satisfaction or depression among the older adults who had just reached their old age.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8th (2020)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on 2,047 people aged 65 to 74 years were used for regression analyses. In the regression analyse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four expectations (heritage gift, work, life expectancy, and government policy)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employment status as a moderat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employment statu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ctations and life satisfaction was found only for the expectation of heritage gift among the four expectatio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expectations and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wer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 or government policy expectations and depression among the four expectation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mployment status was affec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expectations and life satisfaction or depression of the older adults. Based on the findings, the discussion highlighted the need to develop policies to provide jobs to the adults and keep them employed.

Key words : *Quality of life in old age, Subjective expectations of life,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in old age, Old age employment*

I. 서론

생의 후반기 삶의 전반적인 질은 스스로 지각하는 삶의 만족과 관계가 매우 크다(Sahin, Özer, & Yanardağ, 2019). 삶의 만족은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인데(D. Shin & Johnson, 1978), 이는 일반적으로 주관적 안녕이나 삶의 질, 행복감, 복지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도 연구된다(Jung, Bae, & Joo, 2014). 삶의 질도 역시 개인이 선택한 주관적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및 신체적 건강

등 다양한 삶의 측면을 반영하면서 나이 증가에 따라 변할 수 있다(Hohls, König, Quirke, & Hajek, 2021).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성별이나 혼인 상태, 학력, 주거환경, 경제 상태, 여가, 이웃과의 관계, 현재 주거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Chang & Cho, 2014; S. Choi, Yoon, Kim, & Lim, 2018; Hu, Kim, & Jung, 2011; M. Lee, Kang, & Lee, 2017). 또 개인이 지닌 삶의 목표나 태도, 가치관이나 세계관 등도 삶의 만족을 좌우하는 요인인데(Fujita & Diener, 2005), 국내의 여러

연구자는 노후에 관한 고령자의 긍정적인 인식이나 기대감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임을 밝혔다(B. Lee & Lee, 2022; S. Park & Kim, 2023).

한편 삶의 만족이나 질과 관련성이 높으면서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지표는 바로 우울이다(Beutel, Glaesmer, Wiltink, Marian, & Brähler, 2010; Koivumaa-Honkanen, Kaprio, Honkanen, Viinamäki, & Koskenvuo, 2004). 젊은 시절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을 경험할 수 있지만, 생의 후반기에 와서는 대다수가 노화로 인한 신체 건강 악화,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상황 및 대인관계의 변화, 친지와 사별로 인한 상실 등 여러 가지 도전해야 할 일을 마주하면서 우울 증상을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또 심하게 경험하게 된다(Abdoli, Salari, Darvishi, Jafarpour, Solaymani, Mohammadi, & Shohaimi, 2022; Kwak & Oh, 2023; Y. Shin, Kim, & Won, 2019). 우울은 발생 초기에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상적 수준의 우울증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는데, 특히 노년기에 겪는 우울증은 젊은 시절보다 만성적 경과를 보이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Mitchell & Subramaniam, 2005). 우울과 자살 연구에 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우울은 자살 사고(suicidal ideation)나 시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등 자살의 주요 예측 인자인데(Li, Mu, Liu, Zhu, Yue, Liu et al., 2022), 특히 노년기의 우울 증상은 젊은 시절에 비해 자살 위험성이 더 높은 편이다(Hwang & Byun, 2021; H. Kim & Kim, 2007; I. Lee, 2011; Yang, Lee, & Lee, 2022). 생의 후반기에 겪는

우울 증상의 요인은 다양하지만, 삶의 만족과 마찬가지로 우울도 자신의 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B. Lee & Lee, 2022).

앞에서 생의 후반기 삶의 만족이나 우울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기대감을 언급했는데, 이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누적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대하는 긍정적 미래에 대한 주관적 믿음이다(Lim, Chung, & Jeong, 2019). 미래의 삶을 긍정 또는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 적극적인 대처나 적응을 이끄는 데, 이는 고령자에게도 마찬가지다(Aspinwall, 2005). 예를 들면, 인지기능 저하를 보인 노인조차도 주관적 기대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더 낮고 또 삶의 만족 수준이 더 높았다(H. Lee, 2022). 생의 후반기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기대의 기본은 자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이다. 곧 기대 수명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은 미래의 삶에 대한 여러 영역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재정적인 여유 등을 고려하여 일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심신이 약해지면서 건강한 생활양식의 선택을 결정하거나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이나 저축 등 재정 관리의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Rappange, Brouwer, & van Exel, 2016).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생성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고령화 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가 실시되고 있는데(Baek &

Kim, 2022), 조사 내용 일부가 바로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이다. 예를 들면, 조사 설문지의 내용이 매번 조금씩 달라지지만 45세 이상 중고령자들 대상의 2012년도 제4차 KLoSA 설문지 문항은 건강이나 재정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의 질문은 연금이나 상속, 일자리 등의 재정 부문을 비롯하여 기대 수명, 그리고 특히 노후보장에 관한 정부의 정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Yoo & Ban,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자는 KLoSA 조사의 주관적 기대감을 유산이나 근로와 같은 경제적 상황, 기대 수명, 그리고 생활 수준과 정책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해석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대감은 유산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가능성 및 근로 참여 등에 관한 내용, 기대 수명은 추후 생존 가능성을 기대하는 정도, 그리고 생활 수준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본인의 생활 수준 및 자녀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석했다(C. Shin, 2012).

일부 연구자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주관적 기대감 분야의 구분을 활용하여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개인 자산에 대한 기대나 근로 가능성에 대한 기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등이 낮을수록 그 증상의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Cha, Song, Ahn, & Kwon, 202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래까지 노년기의 미래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으며(Lim et al., 2019),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연구들도 대부분 주관적 기대감을 종속변인으로만 살펴본 것들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기대감이 삶의 만족과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기대감은 경제적 측면에서 근로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신체 건강에 대한 지표인 기대 수명, 생활 수준과 정책의 기대 지표인 정부 정책,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서의 유산상속 기대감의 네 분야였다.

우선 경제적 측면의 근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젊은 시절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노년기에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은 소득 창출은 물론 사회 참여로 인한 소외감 해소에 이어져 성공적 노화 및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기제가 된다(K. Lee & Lee, 2016). 즉 생의 후반기까지 근로의 지속은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 자존감 상승 등의 효과를 보이면서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Jun & Kim, 2014). 그러나 고령자들에게 취업의 의미가 무언지를 밝히는 연구에 비해 그들의 근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접어든 자들이 근로 가능성에 기대를 어느 정도 지니는지 또 그러한 기대가 삶의 만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취업상태에 따라 살펴보고자 했다.

기대 수명은 주관적 안녕감의 객관적 지표로 개인의 건강 지각과도 연결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스스로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지각하는지에 따라 기대하는 수명도 달라진다(Rappange et al., 2016).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

자 대상의 한 조사에서도 객관적인 건강 상태보다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수준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에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기도 했다(Koh & Seo, 2011; S. Park,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스스로가 주관적 건강 상태를 토대로 몇 세까지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가 삶의 만족과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드러나는지를 취업상태에 따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노년기에는 신체 노화로 인한 질환이나 장애 발생, 퇴직이나 사별 등에 의한 상실감 경험으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원체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적 연금이 특히 홀로 살거나 빈곤층 노인에게는 경제적인 자원으로 기능하면서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J. Kim & Kim, 2018; S. Kim & Lee,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다양한 제도에 대한 기대가 노인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취업상태에 따라 살펴보고자 했다.

자녀와의 관계의 질은 노부모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ohn, 2006). 노부모의 경우 자녀 세대와 비교하여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불균형적이라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노부모는 이러한 불편함의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유산의 상속이다. 곧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면서 거는 기대는 경제적 측면의 교환이나 거래이자 자녀와의 관계적 측면

에서의 거래에도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노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거나 할 가능성을 지닌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더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의 정서적 지지의 제공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Won & Han, 2016). 물론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때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흔적이나 업적을 남기는 행위로 여기면서 스스로 만족하기도 한다(H. Kim,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유산, 즉 자원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자기 삶의 질이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취업상태에 따라 살펴보고자 했다.

한편 앞에서 노인의 근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삶의 만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 영향은 실제 노인의 취업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취업상태는 노인의 삶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빈곤상태의 노인에게는 생존 수단이나 소득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위험 요소인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소속감이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H. Choi & Jeong, 2016; Ha, Joo, & Song, 2014; Hu et al., 2011). 그러나 취업을 원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시에는 취업이 어려운데, 생의 후반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면서 취업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고령자 대상의 한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여기는 자나 나이가 더 젊은 자들의 취업률이 더 높은 편이었다(H. Choi, 2018; H. Kim & Sung, 2014). 이에

고령자의 미래 삶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이 삶의 만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취업을 원할 때 실제 근로가 가능한 젊은 연령층으로 국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든 지 10년 이하인 65세에서 74세까지의 연령층으로 국한하여 기대감의 영향 여부를 살폈으며, 아울러 그 영향을 조사 당시 취업상태에 따라 살펴보았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기대감의 영향 여부는 KLoSA의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II.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제8차(2020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의 일부였다. KLoSA 자료에는 고령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가족, 건강, 고용, 소득과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한 응답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제8차(2020년) 기본조사에 참여한 7천여 명의 자료 중 65세 이상 75세 미만에 해당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data & cross tabulation analysis of employment status

		total <i>n</i>	unemployed <i>n</i> (%)	employed <i>n</i> (%)	χ^2
gender	female	1,122	834 (74.3)	288 (25.7)	95.049***
	male	919	493 (53.6)	426 (46.4)	
age	65	232	135 (58.2)	97 (41.8)	24.851**
	66	206	123 (59.7)	83 (40.3)	
	67	191	118 (61.8)	73 (38.2)	
	68	225	134 (59.6)	91 (40.4)	
	69	168	109 (64.9)	59 (35.1)	
	70	222	143 (64.4)	79 (35.6)	
	71	196	132 (67.3)	64 (32.7)	
	72	200	144 (72.0)	56 (28.0)	
	73	201	143 (71.1)	58 (28.9)	
	74	200	146 (73.0)	54 (27.0)	
years of schooling	≤ 6	675	450 (66.7)	225 (33.3)	3.612
	≤ 9	467	301 (64.5)	166 (35.5)	
	≤ 12	669	419 (62.6)	250 (37.4)	
	> 12	230	157 (68.3)	73 (31.7)	

방지원 · 백상은 / 노인의 삶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 혹은 우울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data & cross tabulation analysis of employment status
(continue)

		total <i>n</i>	unemployed <i>n</i> (%)	employed <i>n</i> (%)	χ^2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separation, divorce etc.	384	274 (71.4)	110 (28.6)	8.351**
	married	1,657	1,053 (63.5)	604 (36.5)	
annual household income (10,000won)	less than 999	244	218 (89.3)	26 (10.7)	137.387***
	1000~1999	543	401 (73.8)	142 (26.2)	
	2000~2999	445	265 (59.6)	180 (40.4)	
	3000~3999	336	197 (58.6)	139 (41.4)	
	4000~4999	175	98 (56.0)	77 (44.0)	
	5000~5999	93	47 (50.5)	46 (49.5)	
	6000~6999	85	43 (50.6)	42 (49.4)	
	7000~7999	41	14 (34.1)	27 (65.9)	
	8000~8999	33	20 (60.6)	13 (39.4)	
	more than 9000	46	24 (52.2)	22 (47.8)	
type of communities	rural (-eup, -myeon, -dong)	469	238 (50.7)	231 (49.3)	55.333***
	suburban (-gun, -gu)	708	482 (68.1)	226 (31.9)	
	urban (-do, -si)	864	607 (70.3)	257 (29.7)	
subjective health condition	very bad	53	50 (94.3)	3 (5.7)	52.588***
	bad	368	276 (75.0)	92 (25.0)	
	fair/moderate	1,072	676 (63.1)	396 (36.9)	
	good	520	302 (58.1)	218 (41.9)	
	very good	28	23 (82.1)	5 (17.9)	

*** $p < .001$, ** $p < .01$

는 2,047명의 자료였는데, 그중 본 연구 관련 문항 일부에 응답하지 않는 6명의 자료를 제외한 2,04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자료 대상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정보 그리고 취업상태 정보는 <Table 1>에 제시했는데, 취업상태의 비율은 약 35.0%

($n=714$)였다. 아울러 취업과 인구통계학적 정보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보다 남성, 배우자가 있는 사람, 소득 수준이 더 낮은 사람, 도시지역 거주자, 그리고 나이가 더 젊을 수록 취업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지만, 교육 수준과 취업 사이의 관련성은 없었다. 한

편 주관적 건강 상태와 취업상태의 관련성은 직선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변인은 모두 KLoSA의 설문지에 포함된 것이었는데, 설문지에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을 비롯하여 우울, 네 영역의 삶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 취업상태, 그리고 성별이나 나이, 혼인 상태, 교육 수준, 1년간 가구 총소득, 거주 지역, 주관적 건강 상태 등의 개인 정보 등을 묻는 문항이 담겨 있었다. 그 내용 중 삶의 만족과 우울은 종속변인, 주관적 기대감은 독립변인, 취업상태는 조절 변인, 그리고 나머지는 통제 변인이었다. 각 변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삶의 만족

KLoSA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의 5가지 영역으로 측정한 것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문항 하나만을 삶의 만족도로 활용했다. 문항의 질문 및 응답 형태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10점 단위로 응답한 것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2) 우울

우울의 측정은 KLoSA에 포함된 CES-D-10

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이는 20문항으로 구성된 Radloff(199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10문항으로 축약한 척도인 CES-D-10 Boston version(Kohout, Berkman, Evans, & Cornoni-Huntley, 1993)을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이다(M. Shin, 2021). 문항의 예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얼마나 경험했는가?’였으며, KLoSA에서의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 =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 미만), 2 =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3 =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4 =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본 연구에서는 10개 문항의 총점 대신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했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ES-D-10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838이었다.

3) 삶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

삶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은 KLoSA의 주관적 기대감 문항을 활용하였다. KLoSA에서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주관적 판단(유산, 근로), 기대 수명, 생활 수준 및 정부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을 본 연구에서는 유산 증여, 근로, 기대 수명, 그리고 정부 정책에 관한 기대감으로 표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유산 증여 기대감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하여 생각했을 때, 나는 1억 원 이상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것이었다. 근로 기대감은 현재 근로 여부에 따라 문항이 구분되는데, 현재 일

을 하는 경우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 5년은 더 할 수 있을 것이다.’의 단일 문항, 그리고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나는 앞으로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것이었다. 기대 수명은 응답자의 나이에 따라 문항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는 ‘나는 8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는 ‘나는 85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단일 문항에 응답한 것이었다. 분석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응답을 병합하여 하나의 문항처럼 처리하였다. 정부 정책에 관한 기대감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5개 문항으로 측정했는데, 하나는 ‘나라에서 나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네 문항은 ‘국민연금제도(기초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였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의 총점 대신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했다. KLoSA에서 주관적 기대감의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 형태는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간격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삶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 중 정부 정책에 관한 기대감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824이었다.

4) 취업상태

응답자의 취업상태는 KLoSA의 취업 관련 문항의 답변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즉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일이란 직장에 다니시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라는 단일 문항의 답변으로 현재 취업상태를 확인했다. 그 응답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를 취업자(coding 1)와 미취업자(coding 0)로 구분했다.

5) 통제 변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처럼 노인들의 삶의 만족이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Chang & Cho, 2014; S. Choi et al., 2018; M. Lee et al., 2017). 여기에 포함한 변인(및 그 범주)은 성별(0=여성, 1=남성), 나이(연령), 교육 수준(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졸업 이상), 혼인 상태(0=미혼, 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종, 1=혼인 중), 가구소득(1=999만 원 이하, 2=1,000~1,999만 원 이하, 3=2,000~2,999만 원 이하, 4=3,000~3,999만 원 이하, 5=4,000~4,999만 원 이하, 6=5,000~5,999만 원 이하, 7=6,000~6,999만 원 이하, 8=7,000~7,999만 원 이하, 9=8,000~8,999만 원 이하, 10=9,000만 원 이상), 거주 지역(1=읍면동, 2=중소도시, 3=대도시), 주관적 건강 상태(1=매우 나쁨, 2=나쁨, 3=보통, 4=좋음, 5=매우 좋음)였다. 그 중 거주 지역의 경우, KLoSA의 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6개의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洞) 지역은 ‘대도시’로,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동 지역은 ‘중소도시’로, 그리

고 읍면(邑面) 지역은 그대로 ‘읍면동’으로 코딩하였다.

3. 분석 방법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 또는 우울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Model 1을 적용하여 분석했다(Hayes, 2018).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정보인 성별, 나이,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가구 소득, 거주 지역,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를 통제 변인으로 포함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인 4가지 주관적 기대감을 투입했으며, 2단계에서는 통제 변인과 독립변인을 포함한 상태에서 조절 변인인 취업상태를 투입했으며, 그리고 3단계에서는 통제 변인, 독립변인, 조절 변인을 포

함한 상태에서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의 상호 작용 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효과가 드러난 경우는 PROCESS macro를 통해 통제 변인을 투입한 상태에서 조절 효과의 조건부 효과 여부를 살폈다. 이 과정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했다.

III.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 자료의 분포에 관한 정상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Table 2> 참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es

	1	2	3	4	5	6	7	8	9	10
1. age										
2. years of schooling	-.17**									
3. household income	-.18**	.31**								
4. subjective health condition	-.13**	.20**	.13**							
5. inheritance expectation	-.04	.20**	.24**	.24**						
6. job expectation	-.17**	.10**	.17**	.29**	.31**					
7. life expectancy	-.12**	.15**	.14**	.23**	.32**	.44**				
8. government policy expectation	-.03	-.03	-.06*	.06*	.06*	.22**	.20**			
9. life satisfaction	-.03	.20**	.15**	.29**	.36**	.23**	.33**	.18**		
10. depression	.02	-.09**	-.06*	-.22**	-.11**	-.10**	-.21**	-.11**	-.28**	
M	69.42				48.80	42.43	59.59	55.10	64.05	1.53
SD	2.90				32.19	28.20	21.20	15.22	15.79	.48
range	65-74	1-4	1-10	1-5	0-100	0-100	0-100	0-100	0-100	1-4

** $p < .01$, * $p < .05$

조). 그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인(삶의 만족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종속변인과 연속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는 다른 연구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도 <Table 2>에 제시했다. 우선 삶의 만족은 우울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삶의 만족은 교육 수준이나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 상태, 유산 증여 기대감, 근로 기대감, 기대 수명, 정부 정책 기대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던 반면, 한편 우울은 교육 수준,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 상태, 유산 증여 기대감, 근로 기대감, 기대 수명, 정부 정책 기대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2.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

네 영역(유산 증여, 근로, 기대 수명, 정부 정책)의 주관적 기대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분석의 1단계는 통제 변인의 역할을 한 7가지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나이,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가구소득, 거주 지역, 주관적 건강 상태) 그리고 주관적 기대감만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이었으며, 2단계는 여기에다 조절변인의 역할을 한 취업상태까지 포함한 분석이었으며, 그리고 3단계는 여기에다 주관적 기대감과 취업상태의 상호작용 항까지 투입한 분석이었다. 그러나 <Table 3>에는 지면 관계상 1단계와 2단계의 결과를 생략하고 3단계의 결과만 제시했다. 그 대신 3단계의 결과

서술에서 1단계와 2단계의 주요 부분을 곁들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 증여 기대감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모형 모두 투입된 변인들이 종속변인의 변화를 각각 약 13.6%와 20.4% 정도 설명해주었는데,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단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이 두 단계의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거주 지역,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였다. 역시 <Table 3>에 제시한 바처럼 3단계 모형의 설명력 역시 20.6% 정도였으며, 성별($\beta = -.067, p < .01$)을 비롯하여 교육 수준($\beta = .125, p < .001$), 혼인 상태($\beta = .087, p < .001$), 거주 지역($\beta = -.125, p < .001$),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beta = .192, p < .001$)는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드러났지만, 취업상태는 그렇지 않았다. 한편 유산 증여 기대감도 유의한 변인으로 드러났고($\beta = .311, p < .001$), 유산 증여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과 취업상태의 상호작용 항, 즉 그 기대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094, p < .05$).

둘째, 근로 기대감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모형 모두 투입된 변인들이 종속변인의 변화를 각각 약 13.6%와 15.7% 정도 설명해주었는데,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단계보다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이 두 단계의 모형에서 나이를 제외한 다른 통제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 제시한 바처럼 3단계 모형의 설명력 역시 15.8% 정도였으며, 통제 변인이나 독립변인, 조절 변인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beta = -.071, p <$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on relation between inheritance, job, life expectancy, government policy expectation and life satisfaction

IV	inheritance expectation			job expectation			life expectancy			government policy expectation		
	<i>b</i>	SE	β	<i>b</i>	SE	β	<i>b</i>	SE	β	<i>b</i>	SE	β
gender	-2.135	.707	-.067**	-2.251	.730	-.071**	-1.901	.755	-.060*	-2.139	.726	-.067**
age	.165	.112	.030	.310	.116	.057**	.329	.132	.054*	.247	.115	.046*
years of schooling	1.920	.349	.125***	2.237	.358	.146***	2.115	.374	.137***	2.327	.357	.152***
marital status	3.501	.850	.087***	4.206	.873	.104***	4.192	.909	.103***	4.658	.869	.115***
household income	.240	.168	.031	.564	.170	.074**	.518	.175	.068**	.682	.170	.089***
residential area	-2.508	.410	-.125***	-2.272	.422	-.113***	-2.152	.435	-.107***	-2.399	.420	-.119***
subjective health	3.936	.429	.192***	4.348	.447	.212***	3.684	.456	.179***	4.865	.432	.237***
employment status (A)	2.369	1.249	.072	-4.335	1.768	-.131*	-2.228	2.327	-.068	3.385	2.560	.102
inheritance expectation	.152	.012	.311***									
inheritance expectation $\times$ A	-.048	.021	-.094*									
job expectation				.092	.017	.164***						
job expectation $\times$ A				.032	.030	.067						
life expectancy							.195	.020	.262***			
life expectancy $\times$ A							.012	.035	.026			
government policy expectation (B)										.197	.027	.190***
B $\times$ A										-.065	.044	-.117
R^2		.206			.158			.193			.164	
adj. R^2		.202			.153			.188			.160	
ΔR^2		.002*			.000			.000			.001	
F		52.537***			37.971***			43.539***			39.812***	

註. *** $p < .001$, ** $p < .01$, * $p < .05$

.01; 나이 $\beta = .057, p < .01$; 교육 수준 $\beta = .146, p < .001$; 혼인 상태 $\beta = .104, p < .001$; 가구소득 $\beta = .074, p < .01$; 거주 지역 $\beta = -.113, p < .001$; 주관적 건강 상태 $\beta = .212, p < .001$; 근로 기대감 $\beta = .164, p < .001$; 취업상태 $\beta = -.131, p < .05$). 그러나 근로 기대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셋째, 기대 수명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모형 모두 투입된 변인들이 종속변인의 변화를 각각 약 12.9%와 19.2% 정도 설명해 주었는데,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단계보다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이 두 단계의 모형에서 나이를 제외한 다른 통제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 제시한 바처럼 3단계 모형의 설명력 역시 19.3% 정도였으며, 취업상태를 제외한 통제 변인 및 독립변인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beta = -.060, p < .05$; 나이 $\beta = .054, p < .05$; 교육 수준 $\beta = .137, p < .001$; 혼인 상태 $\beta = .103, p < .001$; 가구소득 $\beta = .068, p < .01$; 거주 지역 $\beta = -.107, p < .001$; 주관적 건강 상태 $\beta = .179, p < .001$; 기대 수명 $\beta = .262, p < .001$). 그러나 기대 수명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넷째, 정부 정책 기대감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모형 모두 투입된 변인들이 종속변인의 변화를 각각 약 13.6%와 16.3% 정도 설명해 주었는데,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단계보다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이 두 단계의 모형에서 나이를 제외한 다른 통제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 제시한 바

처럼 3단계 모형의 설명력 역시 16.4% 정도였으며, 취업상태를 제외한 통제 변인 및 독립변인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beta = -.067, p < .01$; 나이 $\beta = .046, p < .05$; 교육 수준 $\beta = .152, p < .001$; 혼인 상태 $\beta = .115, p < .001$; 가구소득 $\beta = .089, p < .001$; 거주 지역 $\beta = -.119, p < .001$; 주관적 건강 상태 $\beta = .237, p < .001$; 정부 정책 기대감 $\beta = .190, p < .001$). 정부 정책 기대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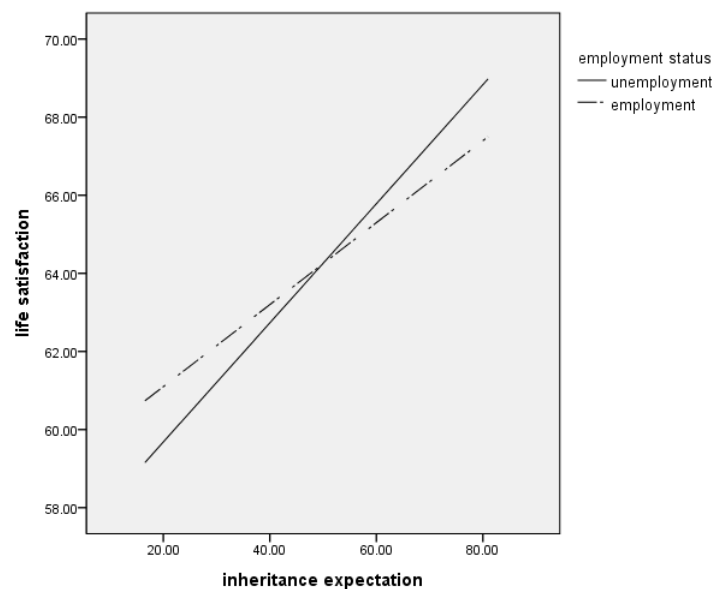
위에 언급한 바처럼 네 가지 기대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는 오직 유산 증여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에서만 드러났다. 이에 유산 증여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의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고자 취업상태를 두 수준(0=미취업, 1=취업)으로 구분한 후에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단순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수준의 조절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Table 4> 참조). 또한 그래프를 통해 조절변인의 수준별 기울기를 살펴본 결과, 취업상태와 미취업 상태 모두 정적인 기울기를 나타냈다. 여기에서 취업상태보다 미취업 상태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두 기울기가 교차했다. 즉 미취업 상태에서는 유산 증여에 관한 기대감이 클수록 취업상태보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쳤고, 그 기대감이 낮을수록 취업상태보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더 작게 미쳤다(<Figure 1> 참조).

<Table 4> The conditional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on relation between inheritance expectation and life satisfaction

DV	IV	employment status	effect	SE	<i>t</i>	CI	
						LLCI	ULCI
life satisfaction	inheritance expectation	unemployment	.153	.013	12.205***	.128	.177
		employment	.105	.017	6.125***	.071	.139

주. *** $p < .001$, ** $p < .01$, * $p < .05$

<Figure 1>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on relation between inheritance expectation and life satisfaction



3.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

네 영역(유산 증여, 근로, 기대 수명, 정부 정책)의 주관적 기대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조절 효과의 분석 절차는 앞 절의 삶의 만족에서와 같았으며, 그 결과의 제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 증여 기대감의 경우,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약 5.1%였으나, 2단계 모형에서의 설명력은 약 7.1%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이 두 단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통 변인은 교육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였고, 2단계에서는 성별도 유의한 변인이었다. 한편 <Table 5>에 제시한 바처럼 3단계 모형의 설명력 역시 약 7.1% 정도였는데, 성별($\beta = .048$, $p < .05$), 교육 수준($\beta = -.062$,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on relation between inheritance, job, life expectancy, government policy expectation and depression

IV	inheritance expectation			job expectation			life expectancy			government policy expectation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gender	.047	.023	.048*	.041	.024	.042	.053	.024	.055*	.052	.023	.053*
age	-.006	.004	-.033	-.006	.004	-.034	-.010	.004	-.053*	-.006	.004	-.038
years of schooling	-.029	.012	-.062*	-.032	.012	-.068**	-.037	.012	-.078**	-.031	.012	-.067**
marital status	-.044	.028	-.036	-.052	.028	-.042	-.028	.029	-.022	-.055	.028	-.044
household income	.005	.006	.020	.004	.005	.015	.003	.006	.012	.001	.005	.003
residential area	-.014	.014	-.022	-.014	.014	-.022	-.014	.014	-.022	-.014	.014	-.022
subjective health	-.114	.014	-.180***	-.126	.014	-.200***	-.097	.015	-.155***	-.115	.014	-.183***
employment status	-.137	.041	-.135**	-.001	.057	-.001	-.187	.075	-.186*	-.334	.082	-.328***
inheritance expectation	-.001	.000	-.049									
inheritance × employment	.000	.001	-.009									
job expectation				.001	.001	.077*						
job × employment				-.003	.001	-.197**						
life expectancy							-.004	.001	-.167***			
life × employment							.001	.001	.080			
government policy expectation										-.004	.001	-.134***
government × employment										.003	.001	.206*
R^2		.071			.073			.089			.080	
adj. R^2		.067			.069			.084			.075	
ΔR^2		.000			.004**			.001			.003*	
F		15.529***			16.089***			17.796***			17.651***	

△. *** $p < .001$, ** $p < .01$, * $p < .05$

$p < .05$), 주관적 건강 상태($\beta = -.180, p < .001$) 및 취업상태는 유의한 변인으로 드러났으나($\beta = -.135, p < .01$), 유산 증여 기대감은 그렇지 않았다. 한편 유산 증여 기대감이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둘째, 근로 기대감의 경우,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약 5.1%였으나, 2단계 모형에서는 설명력이 약 6.9%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이 두 단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통 변인은 교육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였는데, 2단계에서 설명력 상승에 관련된 변인은 성별과 혼인 상태였다(두 변인 모두 $p < .10$ 이었음). 한편 <Table 5>에 제시한 바처럼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약 7.3%로 2단계보다 유의미하게 상승했는데, 교육 수준($\beta = -.068, p < .01$), 주관적 건강 상태($\beta = -.200, p < .001$), 그리고 근로 기대감($\beta = .077, p < .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2단계처럼 성별과 혼인 상태 변인의 유의도 수준은 $p < .10$ 이었다. 그리고 근로 기대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97, p < .01$).

셋째, 기대 수명의 경우,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약 5.2%였으나, 2단계 모형에서의 설명력은 약 8.8%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이 두 단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통 변인은 교육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였고, 2단계에서는 성별과 나이도 유의한 변인이었다. 한편 <Table 5>에 제시한 바처럼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약 8.9%였는데, 성별($\beta = .055, p < .05$), 나이($\beta = -.053, p < .05$),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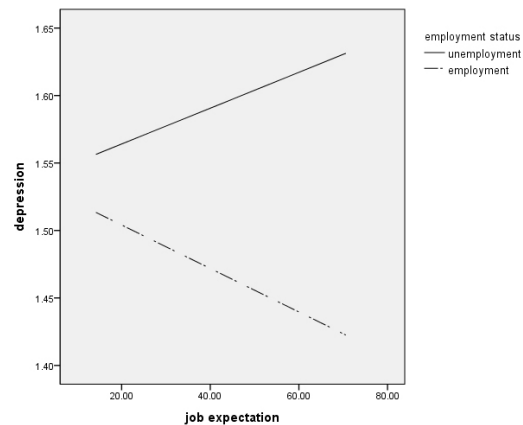
수준($\beta = -.078, p < .01$), 주관적 건강 상태($\beta = -.155, p < .001$), 취업상태($\beta = -.186, p < .05$), 그리고 기대 수명($\beta = -.167, p < .001$)이 유의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대 수명이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넷째, 정부 정책 기대감의 경우,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약 5.1%였으나, 2단계 모형에서의 설명력은 약 7.7%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이 두 단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통 변인은 교육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였고, 2단계에서는 성별도 유의한 변인이었다. 한편 <Table 5>에 제시한 바처럼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8.0% 정도였는데, 성별($\beta = .053, p < .05$), 교육 수준($\beta = -.067, p < .01$), 주관적 건강 상태($\beta = -.183, p < .001$), 정부 정책 기대감($\beta = -.134, p < .001$), 그리고 취업상태($\beta = -.328,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 정부 정책 기대감이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06,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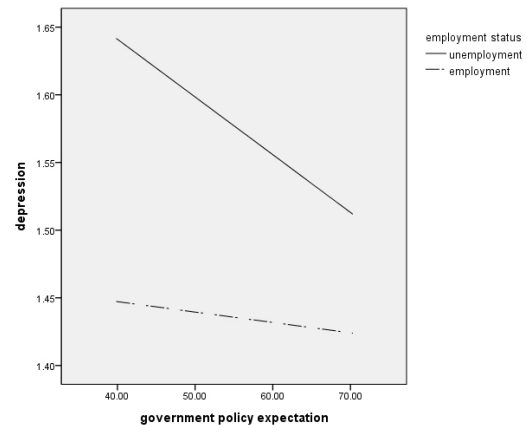
위에 언급한 바처럼 네 가지 기대감이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는 근로 및 정부 정책 기대감에서만 드러났다. 우선, 근로 기대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의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고자 취업상태를 두 수준(0=미취업, 1=취업)으로 구분한 후에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단순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수준의 조절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Table 6> 참조). 또 그래프를 통해 조절 변인의 수준별 기울기를

방지원 · 백상은 / 노인의 삶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 혹은 우울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

<Figure 2>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on relation between job expectation and depression



<Figure 3>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on relation between government policy expectation and depression



<Table 6> The conditional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on relation between job, government policy expectation and depression

DV	IV	employment status	effect	SE	t	CI	
						LLCI	ULCI
depression	job expectation	unemployment	.001	.001	2.493*	.000	.002
		employment	-.002	.001	-1.992*	-.003	.000
depression	government policy expectation	unemployment	-.004	.001	-4.969***	-.006	-.003
		employment	-.001	.001	-.678	-.003	.002

주. *** $p < .001$, ** $p < .01$, * $p < .05$

살펴 본 결과, 취업상태에서 유의한 부적인 기울기를 나타낸 반면, 미취업 상태에서는 유의한 정적인 기울기를 나타냈다(<Figure 2> 참조). 즉, 취업상태에서는 근로 기대감이 클수록 우울 수준이 더 낮아졌던 반면, 미취업 상태에서는 근로 기대감이 클수록 우울 수준이 더 높아졌다. 다음으로, 정부 정책 기대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의 조건부 효과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하

였다. 그 결과, 미취업 상태에서만 정부 정책 기대감이 우울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그래프를 통해 조절 변인의 수준별 기울기를 살펴 본 결과, 미취업 상태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우울 수준이 더 낮아졌던 반면, 취업상태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없었다(<Figure 3> 참조).

IV. 논의

사람은 누구나 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노화 및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근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생의 후반기 역시 연장되고 있는데, 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개인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는 것은 고령 사회에서 파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의 주요한 예방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방 방안의 하나는 고령자가 여생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살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보호 요인 그리고 삶의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자원으로 기능하게 한다(H. Lee, 2022; S. Park & Kim,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노년기의 삶의 만족 및 우울에 미치는 관계가 취업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제8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중 65세에서 74세까지의 응답자 2,047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이 삶의 만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주관적 기대감은 유산 증여, 근로, 기대수명,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산 증여, 근로, 기대수명,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은 모두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삶의 만족에 대한 취업상태의 영향력은 네 가지 기대감 중 오직 근로 기대감에서만 유의미했다. 아울러 기대감과 취업상태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네 가지 기대감 중에서 오직 유산 증여 기대감에

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유산 증여, 근로, 기대수명,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은 모두 우울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울에 대한 취업상태의 영향력이 네 가지 기대감 모두에서 나타났다. 또 우울에 대한 근로 기대감 및 정부 정책 기대감과 취업상태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으나 유산 증여 기대감과 기대수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 또는 우울과 기대감의 관계 및 그 관계에서의 조절 효과 여부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논하고자 한다. 각 항목의 논의 사항은 삶의 만족을 먼저 언급한 뒤 우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현재의 삶에 대해 더 만족스럽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 경향은 노인이 현재 취업상태인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면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노인의 경우 취업한 상태의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던 반면에 그 기대감이 낮은 노인은 취업한 상태의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편이었다. 이는 생의 후반기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지닌 자산으로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상속해 줄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아예 찾을 의지가 높지 않은 노인의 경우에는 유산상속에 대한 기대가 낮으면서 전반적 삶의 만족도 역시 낮게 된다. 그동안 이타심이 기본이었던 우리나라 노인들의 유산상속 동기는 근래에는 전략적 동기도

포함되어 있다(Noh, Shin, & Won, 2017). 예를 들면, 자신이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추후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되기에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기대감과 우울의 관련성에서는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기대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더 낮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B. Lee & Lee, 2022; H. Lee, 2022), 본 연구에서는 유산상속에 대한 기대감이 우울 수준을 좌우하지 않았다.

둘째, 근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는 그 기대감이 높을수록 고령자의 삶의 만족이 더 높은 편이었지만,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취업 상태에 상관없이 생의 후반기에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득이 되므로 삶의 질 상승을 기대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적 역할 수행 등으로 자아 정체감을 유지하게 하므로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취업상태 자체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보면, 미취업자의 삶의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를 여러 방향에서 추론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굳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의 추론은 현재의 연구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추후 질적인 면담 자료 등으로 확인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노인의 취업상태에 따라서 추후 자신의 근로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근로에 관한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 중인 고령자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은 편이었지만,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앞으로 취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상승하였다. 후자의 경우 일부 응답자가 추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상황으로 근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기대감으로 인식하면서 우울 수준이 높아졌을지도 모른다고 추론되지만, 질적인 자료의 부재로 해석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셋째, 고령자 스스로가 지각하는 기대 수명은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심리적 안녕을 좌우하는 요인이다(Bodner & Bergman, 2016).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기대 수명을 길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미래 결과를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상태에 무관하게 성취하고 싶거나 즐기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면서 신체 및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수준이나 사별 여부, 학력, 장애나 신체질환 여부에 상관없이 기대 수명이 길수록 불안이나 우울 등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다(Mirowsky, 1997).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오래 살 수 있다는 고령자의 기대감과 삶의 만족이나 우울의 관련성에서는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대 수명과 삶의 만족이나 우울과의 관련성은 매우 높았다. 이는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기대 수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더 높고 우울도 더 잘 조절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Cha et al.,

2022). 아울러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 지각은 기존의 연구처럼 삶의 만족이나 우울과 매우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Koh & Seo, 2011; S. Park, 2018; Rappange et al., 2016). 일반적으로 생의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면 젊은 시절과 비교했을 시에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되는데,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자는 그 가능성이 더 낮은 편이다(Coudlin & Lima, 2011; Rappange et al., 2016). 이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고령자라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으면서 건강 유지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높여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Mirowsky, 1997).

넷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는 그 기대감이 높을수록 고령자의 삶의 만족이 더 높은 편이었지만,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즉 고령자들은 취업상태와 관련 없이 기대감에 따라 삶의 만족도 역시 상승했다. 근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령자의 노후를 과거처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고령자의 노후에 대해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2006년 67.3%에서 2016년 32.6%로 감소한 통계청 조사 결과는 노인 부양의 책임 주체가 가족으로부터 사회 및 국가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C. Park, 2019). 이에 고령자들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연금제도와 건강 보험제도 등을 비롯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I. Hwang & Lee, 2020),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들은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나 수급 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3/4 이상이 연간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삶의 만족을 좌우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그 기대감이 높을수록 고령자의 우울이 더 낮은 편이었지만,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가 드러났다. 즉, 취업 노인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우울의 관련성은 거의 없었던 반면, 미취업 노인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다른 소득원에서 안정적 수입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제공되는 여러 제도가 경제적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을 낮추었을 것이다. 통계청의 2022년도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은 6,762만 원이었음을 참고할 때, 본 연구 자료에서 미취업 상태 자료의 연간 평균 소득은 7,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무려 95.6%를 넘었으며,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미취업 상태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Table 1> 참고).

이상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년기에 접어들어 고령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는 비정규직에다가 저임금, 제한적 근무 기간 등 낮은 질의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열악한 실정이다(H. Choi, 2018; Jeon & Cho, 2017). 이에 정부에서

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종사 직종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B. Kim, 2014). 본 연구의 자료에 의하면, 고령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 수준을 낮추고 있었지만, 그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임을 인식했을 때는 그와 같은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고령자가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고령자는 다양한 종류의 연금을 통해 노후 안정을 기대하는데, 국가의 연금 제도가 확대할수록 고령자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더 두드러지는 편이다(S. Kim, Kim, Jeong, & Park, 2024).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에게 이러한 기대감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 종류 및 실제적인 수혜 조건을 개개인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서비스 체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고령자들에게 더 안정된 상태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 활동 저하 및 우울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J. Kim & Jeon, 2021).

지금까지 고령자의 삶에 대한 네 분야의 기대감과 삶의 만족 및 우울과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기대감 중에서 유산 증여에 관한 기대감은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가 드러났던 반면, 근로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우울과의 관계에서 취업상태의 조절 효과가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자의 미래에 관한 기대 내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이 취업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고령자의 취업상태를 단순히 취업 여부로만 구분한 상태의 분석이었다는 점이다. 취업한 고령자의 경우 근로의 질을 비롯하여 취업 동기나 의사 등을 고려한 상태의 자료 그리고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의 자료가 확보된 상태의 분석이라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고령자들은 주로 남성이 취업했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 고령자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년기에 갓 접어든 세대의 취업상태에 따라 삶의 만족과 우울에 기대감이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Abdoli, N., Salari, N., Darvishi, N., Jafarpour, S., Solaymani, M., Mohammadi, M., & Shohaimi, S. (2022). The global prevalence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among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and

- meta-analysi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132, 1067-1073.
- Aspinwall, L. (2005). The psychology of future-oriented thinking: From achievement to proactive coping, adaptation, and aging. *Motivation and Emotion*, 29, 203-235.
- Baek, W., & Kim, D. (2022). Factors affecting cognitive function in the elderly using aging panel data: Focusing on demographics, psycho-social, physical, and health-related behavio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4 (5), 1893-1906.
- Beutel, M., Glaesmer, H., Wiltink, J., Marian, H., & Brähler, E. (2010). Life satisfaction, anxiety, depression and resilience across the life span of men. *The Aging Male*, 13 (1), 32-39.
- Bodner, E., & Bergman, Y. (2016). Lonelin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The moderating role of subjective life expectancy. *Psychiatry Research*, 237, 78-82.
- Cha, S., Song, Y., Ahn, E., & Kwon, S. (2022). *The effects of subjective expectations on depression of semi-older people* (중고령자의 주관적 기대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Paper presented at the 2022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학술대회) sponsor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t June 10, 2022, Seoul, Korea (Proceedings of the Meeting, pp. 725-738).
- Chang, C., & Cho, J. (2014). Influencing of quality of life for elderly employment program participants - Social support (social activities, family/social relationship), emotional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 (11), 225-235.
- Choi, H. (2018). A longitudinal study on predictors of elderly employment (comparing young-old with old-old age group). A panel logit approach.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3 (3), 113-141.
- Choi, H., & Jeong, K. (2016). A study on the factor of the elderly's job retention.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13 (2), 43-70.
- Choi, S., Yoon, H., Kim, Y., & Lim, Y. (2018). Effect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 Comparing urban and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3 (1), 111-132.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1), 158-164.
- Ha, K., Joo, M., & Song, S. (2014). Relationship of participation satisfaction, living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participants in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 (10), 160-170.
- Hayes, A. (2018). Partial, conditional,

-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 (1), 4-40.
- Hu, S., Kim, J., & Jung, T. (2011). Analysis of employment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1 (4), 1103-1118.
- Hwang, H., & Byun, H. (2021). Factors affecting suicidal risk among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 (2), 297-307.
- Hwang, I., & Lee, T. (2020).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beneficiarie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 (3), 178-215.
- Jeon, S., & Cho, D. (2017). Labor supply and poverty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19 (2), 71-93.
- Jun, H., & Kim, M. (2014).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longitudinal effect of employment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4 (2), 315-331.
- Jung, D., Bae, S., & Joo, E. (2014). The influence of spirituality and focusing manners on the well-being of middle ag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9 (3), 301-314.
- Kim, B. (2014). Employment structure and income of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or older. *Labor Review*, 10, 21-35.
- Kim, H. (2008). Inheritance and social support from children among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8 (2), 309-323.
- Kim, H., & Kim, B. (2007). A path analysis on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 (3), 801-818.
- Kim, H., & Sung, J. (2014). The longitudinal factors related to the depression of the Korean elderly: Comparison of younger-old and older-ol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6, 427-449.
- Kim, J., & Jeon, M. (2021). The effect of basic pension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living alone and couple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41 (1), 169-185.
- Kim, S., & Lee, K. (2009).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verty-mitigating effects originated from transfer income systems among single-elderly-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 (4), 1559-1575.
- Kim, S., Kim, H., Jeong, S., & Park, E. (2024). Association of the type of public pension with mental health among South Korean older adults: 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y. *JMIR Public Health and Surveillance*, 10 (1) [doi: 10.2196/49129].
- Koh, M., & Seo, I. (2011). Influences of the elderly's health status upon their stress and

-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7 (1), 1-14.
- Koivumaa-Honkanen, H., Kaprio, J., Honkanen, R., Viinämäki, H., & Koskenvuo, M. (2004).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a 15-year follow-up of healthy adul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9, 994-999.
- Kwak, M., & Oh, Y. (2023).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f depression among the young-old adult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12 (6), 253-274.
- Lee, B., & Lee, Y. (2022). The effect of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on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elderly: Verification of the multi-mediation effect of expectation and depression of living standard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2 (4), 365-378.
- Lee, H. (2022). The effect of IADL on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ubjective expecta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7 (7), 125-135.
- Lee, I. (2011). Moderating effects of life problems,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older peop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 (4), 34-62.
- Lee, K., & Lee, H. (2016). The study on the directions to activation for the elderly employment - Focusing on the Pocheon-si -.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2 (1), 1-22.
- Lee, M., Kang, H., & Lee, C. (2017). The relationship among serious leisure, leisur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for older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 (1), 503-515.
- Li, X., Mu, F., Liu, D., Zhu, J., Yue, S., Liu, M., et al. (2022).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 and suicide death among people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cohort studi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02, 332-351.
- Lim, J., Chung, S., & Jeong, J. (2019). Factors affecting later-life expectation of semi-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9 (3), 569-587.
- Mirowsky, J. (1997). Age, subjective life expectancy, and the sense of control: The horizon hypothesi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2 (3), S125-S134.
- Mitchell, A., & Subramaniam, H. (2005). Prognosis of depression in old age compared to middle age: A systematic review of comparative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 (9), 1588-1601.
- Noh, J., Shin, Y., & Won, D. (2017). What are the bequest motives of the Korea elderly?

-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emotional support between assets and bequest inten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 (3), 36-72.
- Park, C. (2019). Analysis on the influence factors of elderly care percep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3), 328-335.
- Park, S. (2018). The effects of health-related factors and social networks on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men and wome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 (1), 154-190.
- Park, S., & Kim, S. (2023).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ageing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1 (3), 81-101.
- Radloff, L. (199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 385-401.
- Rappange, D., Brouwer, W., & van Exel, J. (2016). A long life in good health: Subjective expectations regarding length and futur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 Europ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7, 577-589.
- Şahin, D., Özer, Ö., & Yanardağ, M. (2019). Perceived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elderly people. *Educational Gerontology*, 45 (1), 69-77.
- Shin, C. (2012). The finding of KLoSA study on the subjective expectation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nd old age (중·고령층의 주관적 기대감과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Pension Market Review* (연금시장 리뷰, issued at October 25, 2012 by Hyundai Research Institute), 80, 8-15.
- Shin, D., & Johnson, D.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hin, M. (2021). Depressive symptoms with cognitive dysfunction increase the risk of cognitive impairment: Analysi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2006 - 2018.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33 (8), 791-801.
- Shin, Y., Kim, S., & Won, Y. (2019). A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elderly physical health on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8 (4), 77-87.
- Sohn, E. (2006). The effect of the support given by adult children and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adult children perceived by the elderly parents on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3 (2), 67-94.
- Won, D., & Han, C. (2016). The impact of assets of the elderly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face-to-face meeting, contact

- frequency and financial suppor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6 (2), 475-492.
- Yang, S., Lee, S., & Lee, J. (2022). Factors affecting the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living in the community: Focusing on depression, loneliness, self-esteem,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Global Health and Nursing*, 12 (1), 78-87.
- Yoo, T., & Ban, J. (2012). A study on the change in quality of life among mature-aged in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8 (2), 349-372.
- Received: March 4, 2024
Revised (first form): April 5, 2024
Revised (final form): July 31, 2024
Accepted: August 2, 2024